

대학 도서관의 상호대차 현황과 개선 방안

권 순 박 / 영남대 도서관 사서, 참고서지계장

대학 도서관에서 전체 장서 구입비 중 국외 학술잡지 구입비가 1995년을 기점으로 단행본 구입비를 앞서기 시작했다. 이같은 시점에서 대학 도서관은 효율적인 상호대차를 구축·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 도서관이 어떤 형태의 발전 경로를 밟든지 간에 효율적인 상호대차를 전제해 놓지 않으면, 매년 증가되는 국외 학술잡지의 중복 구입은 피할 수 없고, 보다 많은 종수의 국외 학술잡지를 국내에서 확보하려는 의지는 좌절될 것이다. 효율적인 상호대차로 도서관 협력망을 형성한 후에 선진국처럼 주제중점 도서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머리말

대학 도서관은 정보자원의 공유라는 도서관 이념을 멀리 하더라도 도서관 자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의 상승, 장서공간 부족의 해결 등을 위해 각종 전자매체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상호대차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야만 하는 요인을 가장 많이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의 상호협력, 특히 상호대차의 미비로 타대학 도서관의 자료를 입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른다. 그것은 도서(단행본)

와 학술잡지를 수록한 종합 목록(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종합 목록에서 소장여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문헌을(언제) 손에 쥌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학술잡지는 물론 단행본까지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문헌을 '정확하게' 제공하여 주고 있는 선진 외국의 서지 유틸리티와 네트워크 환경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느 부분 사실이지만, '기브 앤 테이크'의 불균형을 헤아리며 여전히 움츠리고 있는 듯한 '오인'을 받음으로써 대학 도서관은 전통적인 상호대차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으로 다급한 이용자가 직접 찾아 나서고, 종합목록에 없으면 국내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수 소요일 내지는 비용 때문에 많은 문헌신청이 포기되기도 하고, 해외의 문헌을 입수할 때는 고액의 비용을 국내·외의 정보 에이전시에게 지불해야만 한다. 한편, 국가 서지 통정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은 그 정보제공 형태를 고수하는 것으로 보아 발전적인 상호대차, 특히 대학도서관의 자생적인 상호대차제를 마련하여 주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글은 대학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대차의 실태와 일본의 상호대차를 비교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 의학도서관 협의회 소속의 의학도서관과 포항공과대학교 도서관의 상호대차와,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의 상호대차에 관련된 문헌제공 시스템을 비교·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사립대학 도서관이 조직적이고 본격적으로 상호대차를 시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에 필수적인 사립대학 도서관협의회 단위의 종합목록의 중요성과 그 제작 방안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다.

2. 상호대차 현황

1) 용어의 정의 및 범위

도서관학·정보학 용어 사전¹⁾에는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ILL)를 한 도서관이 '의뢰'에 응하여 소속이 동일하거나 동일 캠퍼스가 아닌 다른 도서관에게 자관이 소장한 자료를 빌려주거나 또는 그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는 업무라 정의하였다. 이 글에서도 이 정의에 따랐지만 논지의 편의상 국내에서의 상호대차를 주 대상으로 하였고, 국외 학술잡지 중심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 글은 한국 의학도서관 협의회와 상호대차와 일본 대학의 상호대차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그 두 곳의 상호대차를 소개하고, 이들 각 시스템에서 나온 사례와 통계를 비교하여 대학 도서관의 상호대차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려는 방법을 취했다. 또 실무자로서 가지는 '과감한' 질문, 즉 대학도서관에서 얼마 만큼의 상호대차 건수가 처리되어야 본격적인 수준(앞서 임의로 설정하여 둔 한국 의학도서관 협의회와 상호대차와 일본 대학의 상호대차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통계는 최신의 것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관련 통계가 부족하여 영남대 도서관을 비롯한 주로 대구 지역 대학도서관의 통계를 사용하였다. 이들 통계는 기타 제시한 통계와 시간상 동일 시점 내지는 동일 기간 동안, 경우에 따라 동일 환경을 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전체와 상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석하려고 하였다.

2) 대학도서관

자관에서 해당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과학·기술 분야의 문헌은 산업기술정보원(이하 KINITI라 한다)이 발행한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 과학기술편, 1995』 또는 회원에게 한정된 종합목록 데이터 베이스에서 소장한 도서관을 찾아 내고, 인문

1) ALA glossar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p. 121.

·사회과학 문헌이라면 한국학술진흥재단 발행의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 인문·사회과학편, 1992』에서 해당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여 소장한 기관에 문헌을 의뢰하거나 또는 KINITI에 문헌 의뢰신청을 낸다. 과학·기술 분야의 문헌일 경우 포항공대와 협정을 맺은 일부 대학 도서관에서는 전자통신으로 문헌을 확인 의뢰하기도 한다. 또한 국립 대학 도서관에서는 앞서의 소장 목록만큼 상호대차의 기본도구로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국립대학교 도서관 소장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1990』의 <과학·기술편>과 <인문·사회·예능편>에서 소장처를 조사하고 회원 도서관으로 문헌을 의뢰한다.

국립대학교 도서관이 국립 대학 도서관 협의회에서 ‘도서관 자료 상호이용 규칙’을 제정하여 1990년 8월부터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제2판격인 『국립대학교 도서관 소장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서양서 과학·기술편, 1990』과 『국립대학교 도서관 소장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서양서 인문·사회·예능편, 1990』을 발행하여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내 처음으로 단행본까지 상호대차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특이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행본에 대한 통계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다만 『국립대학 도서관보』를 통하여 매년 문헌에 대한 상호대차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은 『국립대학 도서관보』에 근거²⁾하여 작성한 것으로 1993~1994년에 국립 대학 도서관이 처리한 상호대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의뢰 건

<표 1> '93~'94년도 국립 대학 도서관의 상호대차 건수

구 분	1993년	1994년
국립 종합대 수	21	23
의뢰 건수 합계	13,338	14,201
제공 건수 합계	11,590	24,467
대학당 평균 의뢰 건수	635	617
대학당 평균 제공 건수	552	1,020

* 참고로, 서울대의 1993년도 의뢰 건수는 1,555건, 제공 건수는 4,303건임. 1994년도 의뢰 건수는 1,491건, 제공 건수는 18,652건으로 해당년에 포함 되어 있음.

수 합계와 제공 건수 합계는 해당년도 1년 동안에 종합대학의 각 도서관에서 처리한 상호대차를 의뢰 건수와 제공 건수별로 구분하여 21개 또는 23개 대학의 것을 모두 합한 것이 된다. 여기에는 국외의 문헌신청, 학위논문의 원문 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의학도서관의 상호대차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표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경우 1994년도 상호대차 처리 중 평균 의뢰 건수가 600건, 평균 제공 건수가 1,000건 정도이다.

사립 대학 도서관 협의회는 1972년 발족하여 1979년과 1984년 각기 『외국 학술잡지 목록』과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을 발행하였으나, 기입의 부정확과 정밀함의 부족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KINITI의 전신인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의 『외국 과학기술잡지 종합목록: 과학·기술편, 1983』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 인문·사회과학편, 1985』이 발행된 이후 이것은 곧 쓸모없는 휴지로 되어 버렸다. 사립 대학 도서관의 상호대차는 의뢰받는 도서관의 회신 처리에 대한 성실성, 상호대차 담당자 개인의 적극성 유무,

2) 『국립대학 도서관보』, 제12집(1994), 226면과 제13집(1995), 244면.

상호대차 담당자간 친소 관계에 의해 좌우 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종전대로의 상호대차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상호대차 담당자에 따르면, 상호대차 대금(복사 가격 불일치, 우송료 포함 문제)의 복잡, 선불제의 요구, 상호대차 불참 회신, 대금 지불상의 혼란, 회신 지연 또는 처리 기피, 조사 착오로 인한 자료의 비소장, 종합목록의 최신성 미비 및 부정확, 창구의 비단일화, 팩스 신청의 불가 등이 상호대차 업무를 방해한다고 한다. 대학 도서관의 대부분의 사서들, 특히 국외 학술잡지를 맡고 있는 사서는 상호대차의 불편함과 개선의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상호대차의 수단으로 팩스에 의한 의뢰와 문헌 발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하여, 대학 도서관에서는 공식적인 채널로서 어느 곳에도 팩스를 사용할 수 없다. 최근 서울과 지방 대학 도서관의 몇몇 사서가 상호대차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립 대학 도서관 협의회가 상호대차에 대한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아래 <표 2>는 1995년도 대구 지역 4개 종합대학의 상호대차 건수와 그 중 학위논

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준다. 이 표에서 A·B·C 대학이 사립인 점을 고려, 앞의 <표 1>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사립 대학 도서관의 의뢰 건수는 800여 건, 제공 건수가 300건 정도이다. 이 사실로부터 사립 대학 도서관은 국립에 비하여 상호대차의 양이 적고, 특히 제공 건수에 비하여 의뢰 건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② 상호대차의 대상이 되는 자료 유형은 외국 학술잡지가 약 70%, 학위논문 30% 정도이다.

<표 1>, <표 2>에서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인터뷰한 결과를 밝힐 필요가 있다. 국내 학술잡지에 대한 종합목록이 없으므로 국내 학술잡지의 상호대차 건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수일 뿐이고, 단행본은 상호대차 규정을 제정·발효하고 있는 국립 대학 도서관에서조차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학위논문 담당 사서의 주장에 의하면, 학위논문의 이용 건수는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입수하는 양이 의외로 많다는 것인데, 현재의 상호대차제 형태로는 이용자의 요구가 충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의학도서관

한상완(1988)은 대학 도서관의 협동체제

<표 2> 대구 지역 대학 도서관 '95년도 상호대차 실적: 학위논문의 포함건수 및 구성비

구 분	의 료			제 공		
	의뢰 건수(全)	학위논문	구성비	제공 건수(全)	학위논문	구성비
A 대학	162 건	54 건	(33%)	38 건	18 건	(47%)
B 대학	1,297 건	197 건	(15%)	224 건	74 건	(33%)
C 대학	33 건	33 건	(100%)	100 건	35 건	(35%)
D 대학	1,857 건	*660 건	(36%)	564 건	*190 건	(33%)
합 계	3,349 건	944 건		926 건	317 건	
평 균	837/대학당	236 건	(28%)	232/대학당	79 건	(34%)

* D 대학의 학위논문 건수는 그 대학 상호대차 담당자의 추정치임.

실패에 대하여 언급³⁾한 적이 있는데, 한국 의학 도서관 협의회(이하 KMLA라 한다)를 포함한 3개의 소장 종합목록을 예로 들면서 이들 도서관이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상호대차를 조직적이고 본격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곳은 역시 의학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KMLA는 1968년 서울의 5개 의과대학 도서관이 종합목록을 작성하고 상호대차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KMLA는 1995년 현재 의과대학 및 병원 도서관을 망라하여 140여 회원관으로 구성되었는 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상호대차와 활발한 도서관 협력 사업을 벌이는 협의체로서 도서관 관련 단체 중에 정평이 나있다.

KMLA가 상호대차를 용이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 의학자들의 학술잡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⁴⁾는 점, 도서관 장서의 대부분이 학술잡지로 구성되었다는 점, 의학이라는 단일 주제 분야로 각 도서관이 공동의 목표를 쉽게 수립할 수 있었다는 점,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투자하여 의학잡지의 종합목록을 제작할 수 있고 동시에 종합목록으로의 집중도가 높아 투자 효과가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KMLA의 상호대차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연세 의대와 가톨릭 의대를 비롯한 보다 많은 장서를 가진 규모가 큰 도서관의 헌신적인 노력, 즉 상호대차에서의 일

방적 제공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 도서관의 상호대차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상호대차가 도서관간에 성공적으로 실시되려면 종합목록, 협의체 및 상호대차 규정, 개별 회원 도서관의 협력이라는 3요소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 종합목록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타의 두 요소를 집약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한 의미에서 KMLA가 발행한 『의학 관계 잡지 종합목록』은 큰 공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종합목록은 선진국의 종합목록에 견줄 만한 (또는 더 우수한) 점이 있다. 즉, 전 회원이 소장한 모든 학술잡지를 수록하였고, 배열은 편의를 고려하였으며, 각 타이틀의 레이어아웃이 일목요연하고, 회원의 자발적인 소장 조사를 반영하여 4년마다 정기 개정판을 발행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소장 조사로 인한 높은 문헌 입수율과 선진국에 비견되는 입수 소요일이 그 종합목록의 정밀·정확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KMLA는 이 종합목록 제9판을 1995년 9월에 『구미잡지편』, 『동양잡지편』 2책으로 출판하면서 CD-ROM으로도 제작하여 문헌의뢰 신청서가 자동생산되도록 만들었다. 그 중 『동양잡지편』은 국내 학술잡지를 단행본으로 수록한 최초의 종합목록이다.

다음 <표 3>은 <표 2>의 대구 지역 대학 중 의과대학이 있는 해당 대학 의학 도서관에서 1995년중에 처리한 상호대차 건수를 보여준다. 평균 의뢰 건수가 2,100건, 평균

3) 한상완,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협동체제," 『대학교육』, 통권 34호(1988.7), 62~69면.

4) 윤구호·이영철, "의학 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도서관학논집』, 제18집(1991.12), 81면.

이 논문에 의하면, 의학 분야 연구자의 잡지 의존도가 88.4%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볼 수 없는 비율이라 하였다.

〈표 3〉 '95년도 대구 지역 및 서울·연세 의대 의학 도서관의 상호대차 실적

구 분	B대 의대	C대 의대	D대 의대	계	평 균	서울 의대	연세 의대
의뢰 건수	2,405	2,139	1,684	6,228	2,076	4,696	2,086
제공 건수	1,530	13,066	1,493	16,089	5,363	13,392	27,544
계	3,935	15,205	3,177	22,317	7,439	18,088	29,630

제공 건수가 5,400건인 이 실적은 대학 도서관의 상호대차 평균치에 비하여 의뢰가 약 3배, 제공이 약 24배에 달하는 분량이다. 서울 의대와 연세 의대 도서관의 처리 건수를 참고로 기록하였다. 의학 도서관의 상호대차는 대학 도서관과 달리 의학잡지(국내 의학잡지는 5% 미만으로 추정, 대부분이 외국 의학잡지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상호대차시 문헌입수 소요기간과 회신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회신율이 종합목록의 정확·정밀도에서뿐만 아니라 의뢰 도서관 측의 정확한 서지 조사에서 결정되고, 문헌입수 소요기간은 문헌을 의뢰하고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설정된 요금체계에 의하여, 의뢰받은 도서관의 접수 처리 속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상호대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의학도서관의 상호대차시 입수 소요기간은 대체로 7~13(15)일이라는 분석⁵⁾이 있고 (이에 비하여 국립 대학 도서관은 평균 10~20일이라는 조사⁶⁾가 있다), 회신율은 1995년도 대구 지역 두 의학 도서관을 조사한 결과, 계명 의대에서 의뢰 입수율 89%, 제공회신율 90%, 영남 의대에서는 의뢰 입수율 94%로 나타났다.

3) 포항공과대학 도서관

KMLA 이외에는 상호대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대학 도서관으로 포항공대가 있다. 포항공대 도서관은 '학술정보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정을 맺은 기관(주로 대학 도서관)에 한정하여 상호대차를 한다. 1996년 현재 93개 협정기관이 있고, 협정기관에서는 KINITI의 종합목록이나 인터넷으로 그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LINNET)에 들어와 소장 자료를 조사하고 문헌을 의뢰하는 방법을 취한다.

〈표 4〉는 포항공대 도서관에서 1995년 한 해 동안 의뢰 건수 약 2,400건, 제공 건수 18,900건 정도의 상호대차 업무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상호대차의 실적은 이·공학 학술잡지에만 국한하여, 더구나 한정된 협정기관간에 이루어낸 것으로 국내 대학 도서관 중 제일의 상호대차 양이 된다. 포항공대가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컨소시엄' 형태의 협정기관 형성으로 상호협력 제도를 공고히 수립하였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특히 도서관 전 직원의 경이로운 노동과 상호대차에의 협조가 있었으며 그리고 상호대차에서의 독자적인 요금체계가 있었음을 밝히고 싶다. 대학 도서관이 상호대차 업무중에 발생하는 금전적인 일을 염려하는 경향이 상호대차의

5) 한상철·이인순, "국내 의학 도서관 상호대차 업무 현황 및 분석", 『한국의학도서관』, 제18집(1991), 57면.

6) 최명순, "상호이용제도의 활성화 방안", 『국립대학 도서관보』, 제11집(1993), 53면.

〈표 4〉 '95년도 포항공대의 상호대차 건수 및 내용

의뢰(포항공대 - 협정기관)				제공(포항공대 - 협정기관)			
문헌 발송처	건수	입수 건수	입수율	문헌 수신처	건수	회신 건수	회신율
① 대학(23)	333	244	73%	① 대학(42)	7,813	6,651	85%
연구소(11)	443	354	80%	연구소(18)	6,751	5,511	82%
② KINITI	673	494	73%	KINITI	4,316	3,165	73%
BLDSC	876	698	80%	전문대(5)	25	19	76%
DACOM	47	20	43%	의학 도서관	11	7	64%
계	2,372	1,810	76%	계	18,916	15,353	81%

* 각 난 () 안의 수는 포함된 개별 도서관의 수, 대학은 대학 도서관의 뜻.

발전을 방해하는 한 요인이 되는데, 포항공대는 독자적인 요금 체계를 가짐으로써 불균형 속에서도 오히려 상호대차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표에서 포항공대의 의뢰 입수율은 76%이고, 제공 회신율은 81%이다. 의뢰 입수율에 비하여 제공 회신율이 높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여러 가지 흥미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 각 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좌측의 입수율은 포항공대로 보내준 제공 회신율이 되고, 우측의 회신율은 물론 포항공대가 해당 협정기관으로 보내준 제공 회신율이 된다.

②에서 대학 도서관의 제공 회신율(73%)이 포항공대(81%)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가정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 시스템이 동일한 효율을 가지고 사서의 상호대차에 대한 열의가 같다고 가정하면,

답 : 종합목록 기입의 정확도에서의 차이(정확도 부족은 대개 소장 조사 불철저에서 기인함).

② 같은 종합목록을 사용하여 둘 다 정확한 서지사항으로 문헌을 의뢰하였다고 가정하면,

답 1 :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차이(대

출·제본 기간, 자료 배가의 수준 등).

답 2 : 상호협력 정신의 차이.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볼 때, 대학 도서관은 포항공대에 회신 제공하여 주는 처리 비율(표에서는 의뢰 입수율 73%임)이 가장 뒤떨어지므로, 대학 도서관의 소장 조사가 불철저하였거나, 포항공대나 연구소(자료실)에 비하여 운영 효율성이 뒤진다가 아니라면 협력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에 해당될지도 모를 일이다. ②의 KINITI의 것(73%)에 대하여도 KINITI의 소장문헌에 대한 처리 결과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필자는 예외의 시각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포항공대가 이 표만으로 보아서는 KINITI에 비교적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3. 일본의 상호대차

일본은 1992년 4월부터 '학술정보센터'(National Center for Science Information System)의 Inter-Library Loan System(이하 NACSIS-ILL이라 한다)을 가동하여 같은 해 전국 790개 대학 도서관 중 30%에 해당하는 240개 도서관이 참가⁷⁾하고, 1994년 3월말에는 국립 247개 대학

(83%), 사립 616개 대학(91%)이 참가하여 상호대차를 하고 있다.⁸⁾ NACSIS는 전국의 국·공·사립 대학 도서관을 결합하여 학술도서와 학술잡지의 서지 및 소장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이를 각각 대학 전용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도서관 또는 연구실의 단말기를 통하여 그 정보를 신청 제공하여 주는 전국적인 온라인 시스템⁹⁾이다. 이 NACSIS에는 학술잡지 종합목록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학회보고서, 학술논문 전문 데이터 베이스와 SCI·SSCI, Life Science, EMBASE 등 여러 종류의 CD-ROM이 연결되어 있다(NACSIS-IR). 일본은 NACSIS 한 군데에서 Multi-User용 CD-ROM을 단일 구입하여 각 대학에 NACSIS-IR로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NACSIS-ILL 운용 이후 상호대차 신청은 도서관 직원 또는 문헌 신청자가 도서관에 가지 않고 단말기에서 NACSIS-IR을 검색하고 그 자리에서 NACSIS-ILL에 상호대차 신청을 내는 전자통신 방법으로 바꾸었다. <그림 2>는 NACSIS-IR-ILL을 통한 상호대차 개념도이다.¹⁰⁾ 이것이 우리나라 상호대차와 다른 점은 의뢰시 단행본 대출도 가능하다는 것과 문헌 제공 후보관을 최대 5개까지 지정하여 '소장 없음'이 표시될 때 자동으로 다음 지정관으로 넘어가 처리됨으로써 문헌 입수율이 100%에

이른다는 것이다.

수작업으로 편찬된 문부성 간행의 『學術雜誌總合目錄』은 NACSIS에 의하여 10년에 걸쳐 계속된 사업으로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이 이루어졌다.¹¹⁾ 1993년 3월 현재 학술잡지 종합목록의 전국 조사는 3년마다 和文編·歐文編으로 나누어 교대로 실시하기 때문에 兩編別로 하면 6년 만에 대폭적인 갱신이 이루어지고¹²⁾ 책자형으로 출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의 의학부 도서관(이하 의학 도서관이라 한다)은 대부분 일본의학도서관협회(JMLA라 한다)에 가맹하여 있고 상호협력 실적이 풍부하다. JMLA에서는 『醫學雜誌綜合目錄』을 7판까지 발행하였고, 『現行醫學雜誌所在目錄』을 작성하여 중복 잡지의 교환·보충, 도서 상호대차 등의 사업을 한다.¹³⁾ 의학 도서관은 대학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NACSIS를 통하여 상호대차 업무를 처리한다.

다음 <표 5>와 <표 6>은 『日本の圖書館, 1994』을 근거로 일본 대학 도서관 중 확인 가능한 의학 도서관이 있는 국립 23개 대학과 사립 8개 대학을 선정, 대학 도서관과 의학 도서관의 상호대차를 대비하여 본 것이다. 그리고 <표 5>에서 () 안의 건수는 23개 국립대학 중 7개 주요 대학¹⁴⁾의 평균 상호대차 건수를 뽑아 본 것이다.

7) 甲斐重武, "學術情報センターILLシステムの利用状況と圖書館協力", 『大學圖書館研究』, 第41號(1993.3), p.2.

8) 『日本の圖書館:統計の名簿』(東京:日本圖書館協會, 1994), pp.171~173.

9) 『情報システムハンドブック』(東京:培風館, 1989), pp.2~41.

10) 橋洋平, "NACSIS-IR ILL サービスの問題点", 『大學圖書館研究』, 第44號(1994.8), pp.15~26.

11) 『情報システムハンドブック』, pp.2~43.

12) 甲斐重武, "學術情報センターILLシステムの利用状況と圖書館協力", pp.1~16.

13) 『圖書館ハンドブック』, 第5版(東京:圖書館協會, 1990), p.397, pp.415~416.

14) 北海道·東北·東京·名古屋·京都·大阪·九州大學.

〈표 5〉 일본 23개 국립대학 도서관 상호대차 평균 실적 (1993.4~1994.3)

구 분	책 의뢰수	책 제공수	문헌 의뢰 건수	문헌 제공 건수
대학 도서관	382(585)	636(1,563)	4,961(6,020)	6,994(15,292)
의학 도서관	11(16)	34(100)	3,080(3,856)	7,614(16,167)
합 계	393(601)	670(1,663)	8,041(9,876)	14,608(31,549)

* ()는 국립 주요 7개 대학 도서관 상호대차 평균.

〈표 6〉 일본 8개 사립대학 도서관 상호대차 평균 건수

구 분	책 의뢰수	책 제공수	31개 국·사립 도서관 평균 건수		*전체 의뢰 평균	*전체 제공 평균
			의뢰 건수	제공 건수		
대학 도서관	149	149	2,767	6,609	4,716건	7,405건
의학 도서관	22	31	3,022	7,891	3,079건	7,717건
합 계	171	180	5,789	14,500	7,795건	15,122건

* 전체 의뢰 평균과 전체 제공 평균은 국·사립대학을 총합한 의뢰·제공의 평균 건수임.

이 두 표에 의하면, ① 국·사립 대학 도서관의 단행본을 포함한 평균 의뢰 건수는 4,700건, 평균 제공 건수는 7,400건 정도이고, 국·사립 의학 도서관의 단행본을 포함한 평균 의뢰 건수는 3,100건, 평균 제공 건수는 7,700건 정도이다. 또 여기에서 의학 도서관에 대한 대학 도서관의 의뢰 건수 비는 1 : 1.5 이고, 제공 건수 비는 1 : 0.96 을 나타낸다. ②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제공·의뢰를 통틀어 전체 상호대차 중에 단행본이 차지하는 누적비는 3.8%로 나타나 단행본의 상호대차는 미미한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대학 도서관의 단행본 상호대차는 의학 도서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편이다. ③ (의학 도서관이 있는 대학은 비교적 규모가 큰 대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규모가 큰 대학교 도서관¹⁵⁾은 의뢰보다 제공 건수가 현저히 높다. 물론 규모가 큰 도서관일수록 제공 건수가 더욱 많아진다. ④ 규모가 큰 대학교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의뢰 건수를 갖는다. 이 규모가 큰 대학교

도서관의 의뢰 건수는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⑤ 국립과 사립의 대학교 도서관을 비교하면 문헌 의뢰 건수에서만 사립 대학 도서관이 2,200건 정도 적은 분량이나, 그 외에는 국·사립 대학교 간 어느 항목에서도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NACSIS에서는 문헌 의뢰가 통신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지정된 후보관으로 재신청되므로, 의뢰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100%에 이르는 문헌 입수율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제공 의뢰를 받은 첫번째 도서관에서 문헌을 제공하여 주는 처리율은 93%이고, 단행본 처리율은 89%이다. 문헌 입수 소요기간은 토·일요일과 축제일을 제외한 실제 시스템 운용일로 산출하여 의뢰한 후 4~5일째 도착되는 것이 많고, 11일째까지 90%가 도착한다.¹⁶⁾

4. 상호대차에 대한 KINITI의 역할

15) 여기에서는 '대학교 도서관'을 대학 도서관과 의학 도서관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16) 甲斐重武, "學術情報センタ-ILLシステムの利用状況と図書館協力", pp.1~16.

〈표 7〉 '95년도 영남대 도서관의 KINITI 의뢰 신청 접수 내용

구분	신청 건수	완료 건수	회신율	* 평균 소요일	
입수 범위 제한	KINITI 소장 자료	299	229	77%	16
	국내 소장 자료	234	157	67%	22
	해외 소장 자료	43	33	77%	29
계	576	419	73%	20	

* 평균 소요일은 회신받은 419건의 문헌 중 도착 일자가 확인된 383건의 문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영남대에서는 토·일요일 휴무로 인한 처리 보류와 우편 배달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평균 소요일은 토·일요일이 포함된 일수이다.

KINITI는 과거 상공부 산하의 한국산업
경제기술연구원(KIET)이 산업기술정보센
터(CITI)로 개편되었다가 1991년 법률에
의하여 산업기술정보원(KINITI)으로 개원
하여 현재는 통상산업부에 속한다.¹⁷⁾
KINITI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상호대차서
기본도구가 되는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
록: 과학·기술편』을 제7판(1995년판)에
이르기까지 발행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
발행의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 인문·사
회과학편』에 대하여는 제작에 참여하였다.
앞으로도 KINITI는 국가 서지통정 기관으
로 국내 구독 및 소장 외국 학술잡지에 대
한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을 계속하고, 그
결과물로서 이러한 양대 종합목록을 계속
제작 출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점은 일
본의 대학 도서관에 대하여 NACSIS가 하
는 것처럼 한국의 대학 도서관에 대하여
KINITI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영남대 도서관에서 KINITI로 의뢰
신청한 문헌의 접수 내용을 보자. 〈표 7〉은
1995년도에 영남대 도서관이 의뢰한 문헌

건수 1,297건 중 KINITI에 신청한 건수
576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참고로 영남
대 도서관의 KINITI 문헌 의존도는 44%
로, 포항공대 28%와 경북대 7%에 비하여
매우 높다. 이 표에 의하면, 회신율은 평균
73%인데 각 자료별로 높지 않으며, 국내
소장 자료의 경우는 67%로 아주 낮다. 입
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입수 범위 제한 때문
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낮은 것은 틀림이 없
다. 입수 소요일은 전체 평균 20일이고
KINITI 및 국내 소장 자료의 평균 소요일
은 16일과 22일로, 이 둘을 합산한 평균은
19일이다. 그런데 KINITI 정보자료실의 조
사(1992)에 의하면, KINITI 소장 자료의
소요 일수는 5일 이내, 국내 소장 자료는
20일 이내, 해외 소장 자료는 30일이라고
조사¹⁸⁾되었으나, 평균 소요일로는 이보다
더 단축된다는 의미이니 어떤 연유에 근거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토·일요일과 영남
대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KINITI 소장 자
료의 경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국
내 소장 자료의 회신율과 소요일의 경우,
이같이 뒤떨어지는 이유는 KINITI 문헌처

17) 조찬식,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계 및 개선방향", 『정보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1995.12), 103~126면.

18)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자료실, "산업기술정보원", 『정보관리연구』, 제23권 제3호(1992.9), 11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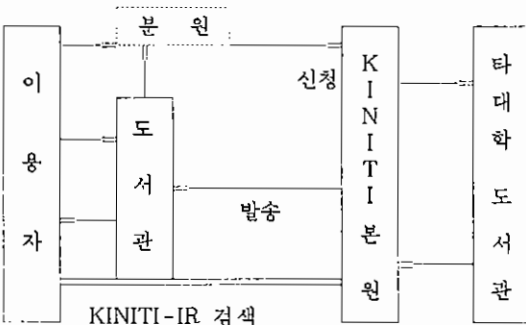
리 경로(도서관 신청→지역 분원→KINITI 본원→협력 도서관→KINITI→신청 도서관) 중의 지연과 KINITI 협력기관의 처리 지연에서 야기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그림 1〉 참조).

KINITI가 우리나라 양대 종합목록을 발행 또는 제작한다는 점에서 제기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성이 국립대학의 상호대차 업무, 특히 문헌복사에 관해서 행정지도로 업무 표준화가 추진된 예가 있다. 그 문부성 직속의 NACSIS가 또한 종합목록을 담당할 점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은 KINITI가 담당하는 종합목록 사업에 어느 정도 협조적일까라는 문제이다. 도서관의 협력이 종합목록의 생명인 정확성과 정밀성을 결정하므로 종합목록 작성에서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서 대학 도서관에서 문헌의 제공 처리율이 낮은 것은 참가 도서관이 소장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음과 관계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종합목록에 수록할 자료의 소장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히 도서관의 몫이지만, 종합목록 제작과정은 참가관이 대상 자료의 워크시트를 철저히 조사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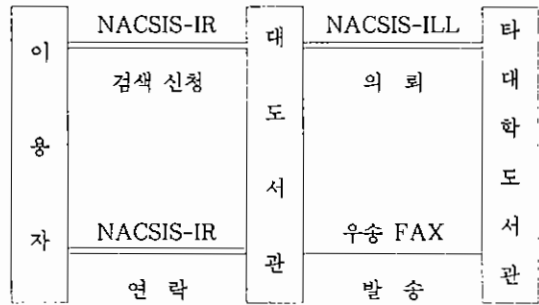
하고, 참가 도서관과 의견교환을 거쳐야 할 것이다. KMLA의 종합목록이 평가받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9판에 이르기까지 반복하여 바로잡고 추가하여 정확성과 정밀함을 갖춘 데에 있을 것이다.

상호대차와 관련하여 KINITI의 문헌제공 시스템을 살펴보자. KINITI는 일본의 NACSIS와 달리 장서를 갖추어 놓고 국가의 서지통정을 확보하여 이운을 추구하는 영리기관이라는 느낌을 준다.

실제로 필자는 이번 일로 문헌을 뒤지기 전까지는 KINITI가 상업정보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림 2〉의 개념도와 같이 NACSIS가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대학 도서관의 상호대차를 지원하여 주는 데 비하여, KINITI는 도서관이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리를 잡아 도서관과 도서관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도록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 도서관간의 자생적인 상호대차를 방해했다고 본다(〈그림 1〉, 〈그림 2〉 참조). KINITI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필자 개인에게 한정될 수 있겠으나, 대학 도서관의 종합목록 제작을 국가기관인 KINITI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발전된 종합목록을 바라는 뜻에서 피력하였다.



〈그림 1〉 KINITI의 문헌제공 시스템 개념도



〈그림 2〉 NACSIS-IR-ILL 상호대차 신청기능 개념도

KINITI 소장 자료: 기본료 800원 + 100
원/면 (팩스 기본료 1,000원 +
150원/면)
국내 소장 자료: 기본료 3,000원 + 150
원/면
해외 소장 자료: 기본료 7,500원 + 600
원/면

KINITI의 문헌 입수비용은 위와 같은데, 이 요금체계는 현재 입수 소요일이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널의 것보다 결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KINITI-IR(Information Retrieval)에는 예약금 성격의 회비(개인회원 20만 원)를 납입하고 회원 등록을 해야 여기에 연결된 외국 과학기술 잡지 종합목록 데이터 베이스(UCAT·KUCT)를 이용할 수 있다. KINITI가 국내 산업기술 정보를 담당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접속 채널을 더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이용자들은 '비싸다'고 하는 KINITI-IR의 데이터 베이스 사용료뿐만 아니라 민간의 VAN 통신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학 도서관 입장에서는 인터넷이나 교육 연구망(SDN) 등과 같이 비용에서나 접근 면에서나 KINITI-IR이 공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대학 도서관간의 상호대차와 관련하여 NACSIS에서의 주장은 상호대차의 수준을 짐작하게 하여 참고할 만하다. "NACSIS 이용 수속과 요금에 있어서, 특히 요금 면에서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당연하

다. 그래서 우선 학술정보 네트워크(NACSIS)의 통신 경비는 정보 유통의 기반시설이라는 생각에 따라 무료로 되었다." "대학 도서관이 가지는 교육 지원이라는 점에서 (문헌 입수 소요기간은) 대학 수업이 대부분 일주일 단위의 커리큘럼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다음 수업까지 필요한 문헌이 학외에서 도착되어야 하고 예습시간도 확보되어야 한다면, 3~4일 후에 도착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기간 내에 도착되는 것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목표로 삼아 전체의 9할이 3~4일에 도착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NACSIS 목록정보과 직원).¹⁹⁾

5. 요약

앞에 기술된 대학 도서관의 상호대차 실태에서 사립 대학 도서관에 비하여 더 많은 상호대차를 처리하고 있는 국립 대학 도서관의 연간 평균 의뢰 건수가 600건, 제공 건수가 1,000건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에서 의학 도서관을 별도로 가질 정도로 규모가 큰 대학 도서관은 한 대학당 어느 정도의 상호대차 건수를 처리하여야 본격적인 수준이 될 것인가?

앞에서 필자는 KMLA의 상호대차와 일본의 상호대차, 즉 일본 대학 도서관과 의학 도서관의 상호대차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전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적용하여 그 분량을 추정하면, 의뢰 건수(x)는 1,400건, 제공 건수(y)는 5,600

19) 『情報システムハンドブック』, pp.2~44; 甲斐重武, "學術情報センターILLシステムの利用状況と図書館協力", pp.1~16.

〈표 8〉 한국과 일본의 상호대차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연간 평균 의뢰 건수(문헌)	국립 대학 도서관	600건	국립 대학 도서관	5,000건
	* 사립 대학 도서관	약 800건	사립 대학 도서관	2,800건
	포항공대 도서관	2,400건		
	의학 도서관	2,100건	의학 도서관	3,100건
연간 평균 제공 건수(문헌)	국립 대학 도서관	1,000건	국립 대학 도서관	7,000건
	사립 대학 도서관	약 300건	사립 대학 도서관	6,600건
	포항공대 도서관	15,400건		
	의학 도서관	5,400건	의학 도서관	7,700건
단행본 상호대차 유무	0		11권 (대학당/연간)	
입수 소요일	의학 도서관	7~13(15)일	11일째까지 90% 도착 (4~5일째까지 절반 도착)	
	국립 대학 도서관	10~20일		
	KINITI	19일		
제공 처리율	의학 도서관	89~94%	100% (단, 첫번째 도서관의 문헌 제공 처리율은 93%, 단행본 제공 처리율은 89%)	
	포항공대	81%		
	대학 도서관	**73%		
	연구소 자료실	**80%		
	KINITI	***73%		

* 국립대 1개교를 포함한 대구 지역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을 사립 대학 도서관으로 하였음.

** 포항공대 상호대차 통계에 근거.

*** 포항공대 및 영남대 도서관의 통계자료에 근거.

〈표 9〉 본격적 수준의 상호대차시 대규모 대학 도서관의 상호대차 추정량

구 분	한 국		일 본	
	대학 도서관	의학 도서관	대학 도서관	의학 도서관
연간 의뢰 건수(x)	x	2,100	4,700	3,100
연간 제공 건수(y)	y	5,400	7,400	7,700

$$x=1,400 \quad y=5,600$$

건이 된다(〈표 9〉 참조). 따라서 현재 평균 의뢰 건수가 600건, 평균 제공 건수가 1,000건이므로 학교당 의뢰 건수는 800건 정도, 제공 건수는 4,600건 정도를 더 처리하여야 규모가 큰 대학 도서관이 본격적인 상호대차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기타 이 글에서 기술한 상호대차 중의 주요 사항을 표로 만들어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6. 제언 : (사립) 대학 도서관 단위의 종합목록 제작 방안

종합목록의 의미는 도서관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뜻이며, 종합목록에 수록할 워크시트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호대차에 동참하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이 근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대학과는 비교적 무관한

KINITI보다 교육부라든지, 대학 도서관 협의체에서 그 종합목록의 제작과 발행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KINITI의 종합목록에 수록된 문헌을 의뢰받은 도서관에서 “우리는 상호대차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응할 수 없다.”고 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과 상통하는 것이다. 어쨌든 종합목록 제작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가의 서지통정을 담당하는 KINITI가 그 종합목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효율적인 상호대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도서관에서는 대학 도서관 단위의 종합목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국립 대학 도서관 협의회에서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1990』 <과학·기술편>과 <인문·사회·예능편>의 발행과 국립 대학 도서관간 ‘도서관 자료 상호이용 규칙’을 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미가 여러 모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종합목록 기입의 정확과 정밀을 기하기 위하여 수록 대상의 적당한 범위가 있어야 하고, 국립 대학 도서관의 종합목록이 이미 나와 있음을 고려하여 사립 대학 도서관 단위의 종합목록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종합목록이 책자형이든, 데이터 베이스에 구축된 형태이든, 그것을 제작 출판하고 참가 대학 도서관의 협력을 얻어 정비를 거듭하는 데에는 국·사립 대학 도서관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학 도서관이 어떤 형태의 발전 경로를 밟든 간에, 현재 미미한 수준의 상호대차를 본격적 수준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효율적인 상호대차를 전제해 놓지 않으면, 매년 증가되는 국외 학술잡지의 중복 구입²⁰⁾은 피할 수 없고, 보다 많은 종수의 국외 학술잡지를 국내에서 확보하려는 의지는 좌절될 것이다. 효율적인 상호대차로 도서관 협력망을 형성한 연후에 선진국처럼 주제중점 도서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발전된 도서관 협력, 특히 현 시점에서 대학 도서관은 효율적인 상호대차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 도서관에서 전체 장서 구입비 중 국외 학술잡지 구입비가 1995년을 기점으로 단행본 구입비를 앞서기 시작했다.²¹⁾ 그렇다면 단행본 구입과 정리에 대부분의 인력과 노력을 투자하던 종래의 단행본 중심 운영 방식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은 없는가. 또 자관에서 벗어난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위 밖이라는 봉사 방법도 도전을 받지 않는가.

끝으로 사립 대학 도서관 단위의 종합목록을 제작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종합목록 제작

종합목록은 제작하기 쉽고, 이용이 많아 효과적이며, 구독가로 보아 외국 학술잡지

20)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자료실,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 데이터 베이스 현황 분석”, 『정보관리연구』, 제 26권 제3호(1995), 54~62면. KINITI의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과학·기술편』에 수록된 타이틀을 분석한 결과, 동일 타이틀의 학술잡지가 중복 소장되는 비율이 1972년 41%, 1992년 53%, 1995년에는 61%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21) 안승대, “대학 도서관 외국 연속간행물 구독 업무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95. 이 논문에 의하면, 1993년 외국 연속간행물 구독 예산이 외국 단행본 구입비의 1.5배에 달하였고, 국내 대학 도서관의 연속간행물 구입비가 1995년부터 단행본 구입비를 앞서게 되었다.

구입비의 75% 이상을 차지²²⁾하는 <과학·기술편>이 가장 시급하다. 다음으로 <인문·사회·예술·체육 과학편>을 만들고, (국내에 없는) 국내 학술잡지를 수록한 종합목록도 반드시 제작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편>의 경우 4년에 한 번 정도 출판하되, KINITI 종합목록의 출판 간격 사이에 발행년을 잡아야 최신성과 종합목록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② 사립 대학 도서관 협의회

현재의 회장교 윤번제를 변경하여 상호대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종합목록의 편찬·출판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있는 회장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협의회 재원을 확보하여 회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지원회원단 구성도 가능하다. 협의회 내에 상호대차 연구분과 등을 두어 여기서 나온 성과를 협의회지에 실어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도적인 장치 마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에 상호대차의 분량, 특히 제공 건수를 기준으로 도서관을 평가한다면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 방법은 정확한 통계가 보장된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상호대차 요금 체계를 포함공대 수준으로 하되, KMLA와 같이 쿠폰제로써 협의회가 수익금을 관리하고, 평가를 거쳐 의뢰가 집중되는 도서관에 지원금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비회원관의 상호대차는 요금 체계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원에게 구독 종수 확보와 특정 저널 구독을 의무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상호대차 담당자가 데스크에 팩스를 갖추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④ 종합목록 발행기금 마련

회비 (및 발행기금)를 구독 학술잡지 종수 및 워크시트의 제출 분량에 따라 차이를 둘 수도 있고, 상호대차시 협의회가 정한 용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그 용지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권순박/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3년부터 영남대 도서관 사서로 재직중이며, 현재는 열람과 참고서지계장을 맡고 있다.

22) 영남대의 정기간행물 구입예산 중 국내 정기간행물은 망라하여 구입하여도 약 5% 정도를 차지할 뿐이고 95%는 외국 학술잡지 구입비가 된다. 그런데 이 외국 학술잡지 구입비 중에 과학기술 분야 학술잡지를 구입하는 데 1994년에는 80%, 1995년에는 7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구성비는 대학 도서관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